

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4월 11일은
투표하는 날



■ 만19세 이상 (93. 4. 12. 이전 출생) 투표하세요

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

- 투표하러 가실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투표 당일 투표할 수 없다면? 부재자 신고로 미리 투표하세요
신고기간 : 3월 23일(금)~3월 27일(화)

■ 1인 2표 후보자에 한 표, 정당에 한 표

- 흰색 투표용지는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에 한 표
- 연두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정당'에 한 표
- 후보자-정당의 정책 공약을 현명하게 판단하여 선택해 주세요

인터넷 참에 **개 19대 국회의원선거** 를 검색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신고전화 **1390**

봄

[통권 388회]
SPRING

새벽을 여는 경복-임자리가 있는 경복

Pride Gyeongbuk

플라이드 경북

4. April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제5회 의성 산수유 꽃 축제 (3. 31~4. 15) 2012 구룡포 수산물 한마당잔치 (2. 25~5. 11) 플라스타트 데이즈 전 포항시립미술관, 10~5. 20	2	3	4	5	6	7 제21회 경주 빛꽃마리온네트 제20회 전국 굿모닝 경연대회 구미시문화예술회관 경상북도 평생교육자 예술한마당 경주예술의전당
8 DVD 영상물 상영 '오페라 푸치니-일 트라타코' 구미시문화예술회관	9 4월 정오에 만나는 예술무대 '봄바람 댄스파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하림&정사파티, 오케스트라 인형무대에올라오세요	10	11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경주예술의전당(4. 12~4. 15) 경북도립국악단 정기연주회 군위 상국유사교육문화회관	12 2012 의성 마늘국제날리기대회 (4. 13~4. 15)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4. 13~4. 15)	13	14 제2회 김천 지두꽃 페스티벌 2012 상주 이리람축제 (4. 14~4. 15) 출타기 아와공연 안동문화예술의전당
15	16	17 2012 청도스씨음 축제 (4. 18~4. 22) '오월의 결혼할까야' (연극레스토랑별 공연) 구미시문화예술회관(4. 18~5. 6) 대구스트리트댄스축제 제64회 정기연주회 경주예술의전당	18 2012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4. 19~4. 22) 해설이 있는 오페라 극장 경주예술의전당	19 2012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4. 19~4. 22) 해설이 있는 오페라 극장 경주예술의전당	20	21 안화지의 집 건축을 위한 유익을 자선콘서트 경주예술의전당
22 29	23 30	24 플래시 3인 3색-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인형무대에올라오세요	25 2012 회랑콘서트 경주예술의전당	26 제9회 영천 보현산 발빛축제 (4. 26~4. 28)	27 제21회 새마을한마당합창 경연대회 구미시문화예술회관	28 2011 문경 전통차시범축제 (4. 28~5. 6)

5. Ma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아트미션식 예방관리 인형극 구미시문화예술회관(5. 3~5. 4)	4	5 2012 영주 선비문화축제 (5. 5~5. 13)
6 DVD 영상물 상영 '오페라 베르디-라 트라비아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7 5월 정오에 만나는 예술무대 '5월의 음악' 구미시문화예술회관	8	9 뮤지컬 '작은나무 이야기' (어린이극) 군위 상국유사교육문화회관	10	11	12 2012 김천 직지 나이트투어 (5. 12~10. 13)
13	14 DVD 영상물 상영 '오페라 베르디-라 트라비아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15 5월 정오에 만나는 예술무대 '5월의 음악' 구미시문화예술회관(4. 18~5. 6)	16 뮤지컬 '춘향전' 구미시문화예술회관(5. 16~5. 19)	17 2012 상주 생명문화축제 (5. 17~5. 20) 내마음 속에 단편 문학 4탄 구미시문화예술회관(5. 17~5. 19)	18	19 2012 영양 지촌예술제 (5. 19~5. 20)
20 필라제 정기연주회 구미시문화예술회관	21	22 이흥극 '손씻기' 구미시문화예술회관(5. 22~5. 24)	23	24	25	26 2012 영주 소백산살쥘제 (5. 26~5. 27) 제21회 영양 비룡주 전국국악대전 구미시문화예술회관(5. 26~5. 27) 생물촌즈 - 엔드슨가의 비밀 안동문화예술의전당(5. 26~5. 27)
27	28	29	30	31 제16회 구미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구미시문화예술회관		

6. Jun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2012 김경호콘서트 in 구미 구미시문화예술회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로미오와 줄리엣 안동문화예술의전당(5. 15~6. 16)	16
17 구미 그린필드&공요원드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18 DVD 영상물 상영 '오페라 미사네-타이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19 6월 정오에 만나는 예술무대 '무른 숲의 노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20 악기야 넌 어떤 소리가 나니? 구미시문화예술회관(6. 20~6. 22)	21	22	23
24 6.25전쟁 제62주년 보훈가을 위로공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25	26	27	28 추억의 7080 콘서트 군위 상국유사교육문화회관	29	30 뮤지컬 '수퍼영웅 발로로' 구미시문화예술회관(30~7. 1) 리메트 앙상블의 세레나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CONTENTS

PRIDEGYEONGBUK

SPRING. VOL.389

Special Theme	04 김관용 도지사, 유럽·아프리카 순방
	06 경북도, 일자리 전국평가에서 최우수 3연패
알찬살림 부자경북	10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계획 확정
	14 경상북도, 외국투자기업 유치활동 '거침없이 질주!'
웃음가득 행복경북	16 경북 북부지역에 새로운 관광의 '랜드마크' 들어선다!
	18 '억대부농' 양성의 요람 경북농민사관학교 합동개강 및 수료식 개최
	19 경북의 증가문화를 명품 문화자원으로...
밝은미래 희망경북	20 김관용 도지사·김범일 대구시장 상호방문 특강
	22 포항~영덕간 동해안고속도로 3조 300억원 투자!
	23 경북도, 새 농협의 핵심사업 유치 추진
도민사랑 일류경북	24 필리핀에 '경북형 부자마을' 만든다!
	26 경북 대학생 희망 안고 세계로!
	27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2012년도 공연일정
나드리, 이리오아소~	28 경북 봄여행 떠나요!
	30 기쁨 만만 곳 - 안동호반 자연휴양림
프라이드 News+	32 찰칵! 경북의 오늘
	37 도정단신
	42 도의회 소식
	50 경북 알리미
	52 건강상식
	53 이 책을 소개합니다
	54 지금 시·군에서는



표지 이야기

봄날, 봄꽃은 달빛과 함께
별처럼 빛이 납니다.

경상북도관광사진공모전 입선
_ 진흥학의 '보문정의 밤' (경주 보문단지)



SPRING

- 발행처 | 경상북도 · 발행인 | 김관용 · 편집인 | 서기용 · 발행일 | 2012년 4월 2일
- 문의처 | 경상북도 공보관실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1445-3)
TEL. 053)950-3058 FAX. 053)956-4926
- 도정 홍보지 「프라이드 경북」의 구독을 원하시거나 주소가 바뀌신 분은
경북도청 공보관실(053.950.305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는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한 '2012 제6차 세계물포럼'에 참가,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지로 확정된 경북·대구를 홍보하고, 3월 17일 폐회식과 개최도시 인수인계식(Handover Ceremony)에 참여하여 마르세유시로부터 세계물포럼 깃발을 인수받았다.

특히 김관용 도지사와 김화자 대구시의회 의장은 인수인계식에 직접 참여하여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지로 확정된 대구·경북의 개최 역량을 홍보하고, 2015년 세계물포럼에 지구촌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해달라는 호소와 함께 세계물위원회(WWC) 회장, 이사진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세계물포럼(WWF)은 물 관련 이슈 및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토론, 공유 및 학습하며 물 관련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을 위해 세계물위원회(WWC)가 개최국과 공동으로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국제행사이다.

한편 김관용 도지사는 이번 프랑스 방문에서 한국계 첫 프랑스 상원의원인 녹색당 원내대표 장-뱅상 플라세 의원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과 만나 한-프랑스, 프랑스-경북도간 우호협력 증진방안,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운동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경북·대구 함께 2015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도시 인수

아프리카 빈곤퇴치 위한 새마을운동 전수 위해 에티오피아 방문



이어 김관용 도지사는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방문, 2010년부터 아프리카지역에 추진 중인 새마을 세계화사업 현장을 직접 돌아보았다.

김관용 도지사는 에티오피아 방문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참배, 현화 후 참전용사 회장인 말라세 타셈마(80세)씨를 만나 한국전쟁 시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준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3월 20일에는 오로미아(Oromia)주 아르시 지역(Arsi Zone)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시킨 한도데(Handode) 및 데베소(Debeso) 마을을 방문하여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알리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새마을봉사단원들을 격려하고 사업현장을 점검하였으며, UNWTO ST-EP재단에서 건립한 '작은도서관(Thank You Small Library)' 개관식에 참석, 오로미아 주지사 등 정부고위관계자를 만나 한국의 새마을운동 확대 보급과 양국간 우호교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김관용 도지사는 에티오피아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 총리와 만나 새마을운동을 에티오피아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에티오피아간 교류증진을 통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뜻을 함께 하고 공동 노력키로 했다.

또한 김관용 도지사는 오로미아주 아다마(Adama)대학 이장규 총장(아프리카 대학 첫 한국인 총장)을 만나 아다마대학에 새마을 현직연구소를 설치하여 에티오피아의 민·관·연구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커넥션스 체계를 구축, 아프리카지역 새마을운동 보급의 거점 기지화를 추진키로 하고, 후속조치로 도내 영남대학교 박정희 리더십스쿨 새마을정책과정 석사과정에 우수 대학생 초청 연수를 실시, 새마을전문가로 육성하고 정기적 교류협력을 통해 아다마대학 내에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경북도에서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2010년부터 아프리카지역에 추진 중인 새마을 세계화사업은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르완다, 탄자니아, 카메룬 등 아프리카 4개국에서 진행 중으로, 특히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는 모로코를 제외한 아프리카 53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아프리카연합(AU) 본부가 소재한 아프리카지역 외교활동의 주무대로서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성공적인 확산전파를 위해서도 꼭 챙겨봐야 할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에티오피아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 총리 면담



'청년 일자리' 부터 '어르신 일자리' 까지 경북도, 일자리 전국평가에서 최우수 3연패

경상북도의 '일자리 만들기' 시책이 전국적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경상북도는 3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 일자리정책 한마당'에서 2011년도 일자리 종합평가(공시제) 전국 최우수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2억원을 수상, 2010년 12월 '지역일자리 공시제 대책부분' 전국 최우수를 시작으로, 2011년 3월 '지역일자리 창출' 전국 최우수에 이어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명실상부 일자리 관련 최고 자치단체임을 전국에 알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러한 '일자리 만들기'의 성과는 13년 만에 순유일 인구가 증가한 것에서도 나타났다. 그 동안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던 것이 일자리가 있는 경상북도로 찾아오는 인구추세로 변화한 것이라는 평가이다.



경북 일자리창출 대표 시책

- 1 일자리 영향평가제 실시**

도청 부서, 소속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자리 영향평가제'는 일자리 예산확보·집행실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우수사례·홍보실적 등을 평가하여 매분기 시상과 인센티브 제공, 일자리창출이 도정제의 목표라는 동기부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2 실국 일자리 할당제 실시**

도청 실국마다 일자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일자리창출 목표를 부여하고, 사업일정·사업조사 작성관리, 매분기 전략회의 및 매주 일자리추진 실적을 점검토록 하여 전 부서가 일자리 도정에 올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 3 경북 일자리 알림e 앱 운영**

임금, 학력, 직종에 따라 발생하는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경북 일자리 알림e 앱 시스템은 모바일앱과 인터넷사이트 등 온라인으로 운영되어 2011년 구인구직상담 11,776건, 취업연계 584건의 성과를 내었으며,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도내 38개 대학과 69개의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센터,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 4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위한 영양 빛깔찬 일자리센터**

2010년 전국 일자리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시상금 5억원과 지방비 3억원 등 8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1383㎡에 연면적 481.3㎡ 2층 규모로 1일 최대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양 빛깔찬 일자리센터'를 건립,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도시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지역의 특화산업을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농 상생발전 일자리사업 롤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5 미래 한국의 스티브잡스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2011년 5월 설립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특강과 시제품제작, 박람회 참가 등의 지원을 통해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판로 개척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 결과, 센터에 입소한 50개팀 중 20여개 창업 기업에서 매출과 고용이 발생하는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11년도는 1인 창업기업 250개, 일자리 1천개를 만들었으며, 2012년도는 300개 창업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6 글로벌 인재 양성(GE4U)

해외글로벌리더 인재양성사업(GE4U)은 지역대학 졸업(예정)자들이 해외연수와 현지 직장 체험을 통해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한국산업인력공단·지역대학이 참여하여 100명의 해외취업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23명은 현지에서 채용되었고, 52명은 새마을리더 봉사단으로 아프리카에 진출하기도 했다.

7 지역특화 농촌여성 일자리사업

지역특화 여성일자리사업은 보육·교육·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여성친화영역과는 차별화된 분야에서 여성의 특성과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종을 발굴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동차부품산업 설계 전문가, 태양광사업 품질관리 전문인력, 한방·의료문화 도슨트(docent, 지식을 갖춘 전문안내인), 기능성 한방화장품 제조인력 등 4개 지역특화 여성유망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8 어르신 일자리 사업

경북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작업 위주의 획일적 일자리 보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관리가 필요한 사업 위주로 총 223억원을 투입, 16,34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 및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2년도는 추가로 받은 상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하여 17,4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9 사회적기업 육성

일반적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북의 사회적기업은 2011년 고용노동부 인증 27개 기업과 경상북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61개로 시·군별 순회 설명회·지역별 컨설팅 등을 집중 실시하여 전국 사회적기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2년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을 60개로 늘리고, 사회적기업이 없는 시·군에 대해 반드시 1개 이상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10 주민 스스로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기업

2010년 11월부터 시작한 마을기업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사업으로 경북은 2011년까지 총 33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영주의 '순흥초군농약대'는 60대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되어 2011년 5~12월까지 7천만원의 매출액을 올려 전국 마을기업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도청이전 新도시, '녹색문화 명품도시'로 건설

2014년에는 도청이전 신도시에서 웅도 경북 재현

경북도청이전 신도시의 청사진이 확정되었다.

경상북도는 2027년까지 2조 3천억원을 투입,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인근 10,966km² 부지에 4만 세대, 인구 1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월 29일 승인·고시했다.

도청이전 신도시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주도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경북의 신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명품행정 지식산업도시'의 3가지 개발방향에 맞춰 '새로운 천년의 미래를 꿈꾸는 세계의 중심도시!', '경북의 역사와 전통, 도전과 발전, 희망과 행복을 담아내는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된다.

'문화도시'로서 역사와 전통을 고려한 건축물 디자인을 도입하고 한옥호텔과 특화상업지구 등 관광중심도시의 기능을 부여하면서 유교문화 교육관을 조성하고, '생태도시'로서 물순환 수변도시, 태양광 발전, 지열시스템, 테마길 구성, 한옥마을, 어반팜빌리지, 슬로우빌리지, 보행 및 자전거 위주의 도로망을 건설하며, '지식산업도시'로서 도청·도의회·도교육청·도경찰청을 포함한 핵심 광역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또 금융·IT융합산업·방송통신융합산업·바이오·신소재산업 등 지식서비스 산업을 촉진하고 미술관·자립형학교·전시장 등 다양한 교육·문화기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3단계별 개발 추진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은 2010년부터 2027년까지 18년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사업효과·사업특성 등을 감안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 사업기간을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개발하여 인구 10만명의 행정중심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해 나가기 된다.

1단계 태동기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도청, 도의회, 도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이 들어설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부지 4.76km²에 인구 2만 5천명 규모로 건설된다.

2단계 성장기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지 3.31km²에 인구 4만 3천명 규모로 주거, 상업시설, 종합병원, 복합환승센터 등을 조성하고, 마지막 3단계 확산기 사업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부지 2.9km²에 인구 3만 2천명 규모로 주거용지, 산업/R&D, 특성화대학, 테마파크 등 도시자족시설을 갖추게 된다.

또한, 신도시의 개발 특화방안으로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북 북부지역의 성장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행정타운을 안동과 예천지역에 각각 분산 배치하고, 아울러 안동지역은 하회마을과 연계한 문화·관광·휴양레저 기능을 강화하고, 예천지역은 산업·연구시설·대학을 중심으로 한 자족 및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총면적 10,966천m² 부지 중에서 주거용지 297만4천m²(27.1%), 상업용지 23만4천m²(2.1%), 특화상업 8만1천m²(0.7%), 업무용지 51만6천m²(4.7%), 도시지원시설용지 14만8천m²(1.3%), 기반시설용지 678만6천m²(62.0%), 유보지 22만7천m²(2.1%)로 조성된다.

인구수용 및 주택계획은 생활권별 자연조건 및 경관 등 입지여건을 고려한 인구밀도 적용으로 생활권의 적정인구를 배분하고, 주변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4만 세대, 10만명 수용을 위해 단독주택 2,377세대, 공동주택 37,623세대를 공급, 이 가운데 임대주택 9,608호를 계획하고, 단계별로 1단계 10,128호, 2단계 17,340호, 3단계 12,532호를 건립할 예정이다.

교통지리계획은 이미 개설되어 있는 남북방향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시행 중인 동서방향의 동서4축 고속도로(상주~안동~영덕), 계획된 동서5축 간선도로(문경~여주~울진), 상주~영천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광역 교통근접체계를 수립하고, 안동·예천 기존 시가지도로와 지역간 간선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연계를 위한



도로 신설 및 확장으로 접근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지구의 중심성 강화와 주변지역과의 연계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광역교통망과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7개 노선 69km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이중 안동~도청을 연결하는 국도34호선~신도시 구간과 예천~도청을 연결하는 예천소재지~신도시 구간을 조기에 개설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어 향후 안동~신도시~예천간 편리한 교통연계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지구내 교통계획으로 문수지맥 등 자연지형을 고려한 간선골격을 형성하고 주변지역과 연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가로망 체계를 구축하여 동서방향으로 안동에서 문경을 연계하고 남북방향으로는 지방도 927호선과 914호선을 중심으로 예천, 의성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계획하고, 주간선도로의 폭원은 동서방향 상장가로축 50m, 남북방향의 지방도 927호선은 25~30m, 지구내 순환도로는 30m 폭원으로 계획되었다.

●● 공원·녹지율 45% 정도 쾌적한 도시 지향

공원·녹지계획 중 신도시내 공원 녹지율은 전체의 30.0%를 차지하며, 사업지구 내 공개공지 포함시 실제 활용 가능한 공원·녹지율 45% 정도로 쾌적한 도시를 지향해 주민들은 친환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원·녹지는 검부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문수지맥의 보존과 중심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는 연속성을 구축하고, 소공원 12개, 어린이공원 15개, 근린공원 15개, 주제공원 20개 등 62개의 공원이 들어서고, 23개 시·군별 지역문화의 상징과 축제를 담을 수 있는 호국상징공원을 도청과의 동일축 선상에 배치하여 상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 의료 등 가족친화시설로 도청신도시 내에는 공동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에 배치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 내 병설유치원을 고려하여 총 6개소 유치원을 기초생활권에 적정 배치하고, 안동시 및 예천군 인구수 대비 학생수 등을 고려, 생활권별 초등학교 7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3개소를 배치하고 도청이전신도시의 자족 기능 향상과 경상북도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특성화대학교 1개소를 배치할 계획이다.

문화·체육시설은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기념관, 전시관 등 4개소와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2개소,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설치되며, 의료시설은 경북응급의료센터와 종합병원 유치로 신도시 주민은 물론 경북 북부권 도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설치계획 중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용상1정수장을 개량(Q=30,000m³/일)하고, 도청신도시 용수공급 송수관로를 신설(D=700mm, L=30km)하여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일원의 도청신도시 배수지(V=21,000m³)로 용수를 공급하고, 관망은 물이 정제되지 않고 단수의 범위가 작은 복식관망으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은 부지면적 약 5만m² 규모로 설치하며, 생활오수는 오수간선관로를 통해 환경클러스터 내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하천유지용수로 재활용하고, 하수처리시설은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등 환경기초시설과 복합화 하며 하수처리시설의 지상부는 공원으로 계획하여 주민친화적인 환경기초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시설은 가급적 관리동만 지상부에 설치된다.

또한 사업지내 하천의 치수적 안정성 고려 및 경관, 하천생태계, 친수활동 등을 고려한 생태하천 조성계획으로 지방

하천 송평천과 세내비천, 도양천 등 소하천을 친수공간의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을 계획하고, 기존의 호민저수지를 존치하여 테마파크와 연계한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도청신도시는 자연지형 및 지역 역사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자연순응형 정주공간을 창조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전통·역사·문화가 접목된 21세기형 친환경 첨단신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전통과 문화가 접목된 실용적인 신도청사 건축 추진

한편 도청신도시 행정타운 구역에 계획된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은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부지 24만5천m²에 건축면적 12만5천m²의 지상 7층 지하 2층으로 경북의 전통과 문화가 접목된 실용적인 청사 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신청사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지장물 철거 및 부지정지 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지하층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는 등 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4월경에는 골조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물신축과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난해까지 59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올해에는 건축비 650억원과 부지매입비 250억원 등 9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축물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부터는 전기, 통신, 소방 등 내부설비 공사를 추진하여 2014년 3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하고 이후 6월까지 시운전을 실시하고, 2014년 6월에 역사적인 신도청소재지로 이전할 계획이다.

도민의 숙원이던 도청소재지 이전문제는 2006년 민선4기 김관용 도지사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담은 공약으로 촉발되어 2008년 6월 도청이전예정지 선정, 2010년 4월 경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같은 해 11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의 전문가 자문, 도의회 의견청취,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 이행과 함께 중앙부처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올해 2월 7일 개발계획에 대한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외국투자기업, '성공파트너' 경북을 선택하다!

2011년 외자유치 실적도 서울, 경기도에 이어 **3위** 기록

GYEONGSANG BUKDO



경상북도의 외국투자기업 유치활동이 올해 들어서도 '거침 없는 질주' 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9일 경상북도와 포항시, (주)포스코켄텍, 토카이카본(주)는 포항 부품소재전용공단에 1,800억원을 투자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탄소소재 분야 기술노하우를 가진 일본 토카이카본사와 콜타르 등 등방흑연소재 원료를 보유한 포스코켄텍이 합작 투자하여 포항 부품소재전용공단 내에 등방흑연블록 제조공장을 설립, 2014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월 28일에는 김관용 도지사가 일본 도레이사를 직접 방문,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도레이그룹 회장을 만나 차세대 물산업의 핵심 소재인 '멤브레인' 생산공장을 구미에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멤브레인은 특정 성분을 선택적으로 통과시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막을 일컫는 것으로, 정수와 하수 재이용 등에 활용되는 미래성장 소재·부품으로, 이번 김 지사와 사다유키 회장 간의 약속에 따라 구미 도레이첨단소재가 이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10일에는 하루에 두 건의 투자유치를 확정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경북도와 구미시가 공동으로 신화정밀(주), 신화타카하시프레스(주)와 각각 체결한 투자양해각서(MOU)가 바로 그것이다.

신화정밀과 일본기업이 합작한 ST정밀(주)이 102억원을 투자해 절삭가공생산공장을, 신화타카하시프레스(주)가 68억원을 들여 금속압연공장을 구미에 건립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

그 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9일에는 스페인 악시오나사가 영양풍력단지 내 950억원을 증액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경북도·영양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악시오나사는 기존 영양풍력 1단지, 청송풍력 단지에 이어 석보면 일원에 2.0MW급 풍력발전기 19기 규모로 영양풍력 2단지를 건설하게 된다.

이처럼 올해 연초부터 경상북도를 투자파트너로 선정하는 외국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외국인전용공단 등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은 물론, 끈질기게 기업을 설득하는 등 경북도의 한발 앞선 기반조성과 감동 유치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란 분석.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1월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11년 외자유치 실적에서도 경북도는 서울시, 경기도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경북도의 지난해 외자유치 실적은 신고기준 8억3,500만불로, 범수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충남 6억4,200만불은 물론, 수도권인 인천 6억3,800만불보다 월등하게 많은 규모다.

김관용 도지사는 "투자유치야말로 일자리를 만드는 첩경이고, 경북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며,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더 많은 기업을 경북에 모셔 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문화관광단지 인기 관광명소로 비상!

유교문화 체험센터·가족호텔·콘도·대중골프장 갖춘 종합휴양테마파크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안동문화관광단지가 인기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안동문화관광단지는 2003년부터 안동시 성곡동 일원에 1,662,629㎡ 규모로 201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1,526억원 등 총 4,858억원을 투자하여 유교문화 체험센터, 가족호텔, 콘도, 대중골프장 등을 갖춘 종합휴양테마파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에서는 먼저 안동시 용상동과 안동댐 선착장을 이어주는 안동문화관광단지를 지금까지 진입도로 2.3km에 268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 완공했고, 기반조성공사도 2009년 준공하여 관광단지의 기틀을 갖추었다.

이를 기반으로 안동댐과 관광단지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31m 높이의 전망대와 전국 명칭공모를 통해 새 이름을 얻은 온프레피움(유리온실), 운동시설 등은 이미 개장하여 성황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4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 중인 유교문화체험센터는 경북 전역에 남아 있는 유교관련 관광자원을 모아 유교문화에 대한 기초지식, 우리 생활 속의 유교문화 등을 관광객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스토리텔

링형 체험학습 시설로써 올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관광단지 내에 친환경적인 대중골프장을 조성 중으로, 2013년 골프장이 개장되면 경북북부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관광단지과 인접해 있는 민속촌 내 기존 KBS드라마 촬영장을 활용한 민속촌 한자마을, 한옥서당 건립과 안동댐 조정지 댐 내에 낙동강 개복나루터 조성을 위하여 올해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경상북도 김상준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현재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상업·숙박시설의 민자유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성 중인 대중골프장의 개장과 함께 유교문화체험센터, 민속한자마을, 하늘수목원, 민속박물관 및 월영교, 가족호텔 등과 연계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상품화하여 안동호 주변이 체험·교육·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종합 숙박휴양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어업 전문CEO' 양성으로 부자농촌 만든다!

경북농민사관학교 합동개강 및 수료식 개최

경상북도는 3월 6일 농·어업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대학교 솔피문화관에서 경북농민사관학교 합동 개강 및 수료식을 개최, 우수교육생에 대한 시상 및 신입생 대표 2명에게 배지를 수여했다.

또 농기계운전 및 정비기능사과정 조기현 교수의 '1인 1자격증 취득과 과정운영 성과'라는 주제의 사례 발표와 농촌여성농산물가공창업과정 구남보 수료생의 '새로운 도전, 또 다른 시작'이란 주제의 성공사례 발표, 그리고 농업MBA과정 진병복 수료생의 '23살 농부 성공사례' 발표 등을 진행했다.

이날 합동 개강 및 수료식은 지역 내 7개 대학 등 12개 교육기관·단체에서 과정별로 교육이 이뤄지는 농민사관학교 특성상, 그간 부족했던 교육생간 공감대 형성은 물론 일체감을 다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상북도 농민사관학교는 FTA 등 농·어업의 글로벌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북농어업을 이끌어 나갈 농어업전문CEO를 양성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5,919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올해에도 59개 과정을 개설한 가운데 1,6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농·어업 전문CEO 양성기관'으로써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 농·어업은 외적으로 FTA·글로벌 경제위기와 내적으로 원자재 값 상승, 고유가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 급격한 환경 변화로 농어업인들은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농·어업은 선진국을 가기 위해 희생해야 할 산업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승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52개 증가문장(紋章) 디자인 저작권 등록

기념품 제작 및 스토리텔링 소재 개발 등에 적극 활용

경상북도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내 52개 증가의 문장(紋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경북증가 문장 제작은 개별 증가의 전통과 문화·사상에 걸맞은 상징을 현대적 디자인으로 이미지화한 것으로, 이번 저작권 등록을 통해 증가별 문장 사용에 대한 추정력·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확보, 도내 증가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명품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 문장 디자인 제작을 마무리 하고, 제작한 문장 디자인을 등관 및 깃발 형태로 제작하여 전시·홍보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와 함께 증가에서 생산하는 특산품 및 문화상품 등에 로고로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기념품 제작 및 스토리텔링 소재(素材)로 개발하는 등 해당증가와 협의하여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가문화를 명품 브랜드화한 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증가별 문장 디자인 제작은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증가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서 "증가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사상 등을 상징화하여 활용함으로써 종손·종부님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세계적인 문화브랜드로 발전시키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에 의뢰하여 도내 문화재로 지정된 증가 가운데 희망증가를 대상으로 증가별 문장 디자인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참여를 희망한 90여 증가 가운데 52개 증가에 대한 문장 디자인을 제작한 상태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나머지 40여 증가를 대상으



김관용 도지사·김범일 대구시장 상호방문 특강

경상북도·대구광역시, '상생협력' 위한 '찰떡공조' 다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지역 대통합'을 위해 '상생협력'의 손을 맞잡았다.

경북·대구는 먼저 '찰떡공조'를 다짐하며 지난 2월 20일 김관용 도지사가 대구시를 방문, 대구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다시 한 번 역사의 전면에서 나서자'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열어 경제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의 의지를 천명한데 이어 3월 5일에는 김범일 대구시장이 경북도를 방문해 경북 공무원들에게 '대구경북, 국가균형발전과 대

한민국 도약의 주역이 되자'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번 특강은 연초부터 대구경북 간부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시·도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더욱 긴밀히 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올해 초에 대구시와 경북도 간부공무원들이 교차 방문하여 상생협력의 결의를 다지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2015세계물포럼 성공 개최 등 9건의 정책협력사업을 새로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경북도와 대구시의 이러한 행보에 발맞춰 양 시·도의회

P R I D E G Y E O N G B U K



에서도 지난 1월에 의장단이 교차방문을 하고 지역현안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양 시·도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가칭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현안사항에 대해 보조를 맞추고 있다.

양 시·도는 공동협력사업으로 3월 12일에서 17일까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한 제6차 세계물포럼에 공동 참석하여 차기 개최지 인수식·공동 홍보를 펼쳤으며, 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확대되고 있는 세계 물산업을 지역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 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북도의 질 좋은 먹거리(농축산품)를 저렴하게 대구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상설매장 운영,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쉬메릭+실라리안) 제품 공동 판매장 운영으로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관광부문에 있어서 경북의 전통문화, 자연자원과 대구의 문화 공연, 숙박, 쇼핑 등을 융합한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농업인대학과 경북도 농민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을 상호 개방하여 농업기술교류와 귀농·귀촌지원 등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550만 시·도민의 역할을 재결집하여 영남권 신공항 건설 재추진이 총선·대선에 주요이슈가 되도록 공동 대응하고, 경북도청 이전과 후적지 개발에 국비지원 등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한미 FTA 최대의 수혜산업으로 예상하는 섬유분야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대구 로봇밸리 센터 조성사업에 경북도가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대구권 광역철도망의 조기 건설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연장 건설도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상생협력사업으로 건설 중인 도시철도 2호선 경산 연장 구간은 올해 결실을 맺어 개통을 앞두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와 김범일 대구시장은 이번 협력의 틀 마련을 계기로 "대구·경북이 멀리 보고 함께 가는 모습으로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시·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안 해저터널·인공섬·해상교량 건설로 지역의 랜드마크 효과

관광, 산업 등 시너지효과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경상북도는 동해안의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노선을 영일만대교(해저터널 포함)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확정했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서측의 육지 쪽으로 계획된 것을 타당성조사에서 동측 영일만항 노선으로 확정된 것이다.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영덕군 강구면 삼작리 구간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총연장 48.2km, 폭 20.0m 4차로에 사업비 3조 3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로서, 영일만항을 가로지르는 해상구간 9.1km는 사업비 1조 1,400억원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동해면을 시점으로 4.2km는 해저침매터널로, 나머지 신항만까지 3.9km는 영일만대교(가칭)를 계획하고, 터널과 교량 중간에는 인공섬 24만㎡를 조성하여 신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에는 국비 65억원을 확보하여 민간구간을 제외한 일반구간 39.1km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0년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그 동안 공사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끈질긴 노력 끝에 2008년 9월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남북 7축(울산~포항~영덕) 고속도로가 포함되었고, 이번 타당성조사의 통과로 본격 추진의 전기 마련과 함께 국토 U자형 투자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포항시 시가지외곽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계한 네트워크형 교통순환체계 형성과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블루벨리)와 포항공항, 신항만, 포항철강산업단지와 접근성 향상으로 교통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영일만 해상교량 건설로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랜드마크 효과에 따른 관광, 산업 등의 시너지효과 제고와 함께 4,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협 구조개편 관련 핵심사업, 경북지역 유치 총력!

4,060억 규모 10개 사업 선정, 농축산물 유통혁신 기대

경상북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농협중앙회가 50년 만에 중앙회, 경제지주, 금융지주회사체제로 구조를 개편·출범함에 따라, 향후 농축산물 산지유통의 농협중심 이동 및 계열화된 물류·유통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역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핵심사업을 경북지역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 농협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새로이 출범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신규투자계획을 검토·분석, 지역 유치를 추진키로 선정한 핵심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4,060억원으로 농자재 유통센터 건립,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농산물상품화시설 설치, 대경권 복합물류센터 건립, RPC 현대화 등 농산분야 5개 사업과 축산물 열처리 가공공장 건립, 축산물 부분육 가공시설, 권역별 도축시설 확충, 광역계란 유통센터 신설, 도계가공공장 건립 등 축산분야 5개 사업이다.

도에서는 이들 핵심사업의 성공적 유치가 산지유통혁신, 물류혁신, 소비지 유통혁신 등을 통한 '지역 농산물 유통고속도로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의 새로운 도화선이 되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경북도 선정 지역유치 추진 10대 핵심사업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규모
농산	농자재 유통센터 건립	250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163
	농산물상품화시설 건립(공판장 현대화)	366
	RPC 현대화	979
	대경권 복합물류센터	500
축산	축산물 열처리 가공공장 건립	350
	축산물 부분육 가공시설	200
	권역별 도축시설 확충	450
	광역계란 유통센터 신설	499
	도계가공공장 건립	303

살라맛 뵈! 경상북도!! 살라맛 뵈! 새마을운동!!

(감사합니다)

김관용 도지사, 필리핀 잠발레스주와 우호교류협력 의향서 체결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개발 성공 경험을 가난한 나라에 전파, 세계의 평화와 경제개발에 이바지하는 국제화 그랜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김관용 도지사는 지난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필리핀 농촌지역을 '경북형 부자마을'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경북의 새마을운동을 전수하고 있는 곳인 잠발레스주 현지를 방문했다.

김 지사는 이번 방문에서 필리핀 잠발레스주와 우호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경상북도 국제화 그랜드플랜'으로 추진 중인 'Pride Barangay(프라이드 바랑가이) 시범사업'으로 건립한 다목적회관, 고등학교, 아이타족 장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잠발레스주 산펠리페시에서 개최한 다목적회관 준공식에는 엠다니 주니어 주지사 및 준 오마르 엠다니 국회의원과 캐롤린 파리나스 산펠리페 시장,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고, 산마르셀리노시에서 개최한 바랑가이 고등학교 및 소수민족인 아이타족 장터 준공식에도 주지사, 밀라그로스 국회의원과 호세 로드리게스 산마르셀리노 시장, 지역주민 200명이 함께 하는 등 김관용 도지사 일행이 가는 곳마다 대규모 환영행사를 마련하는 등 '친(親)경북', '친(親)대한민국'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고조됐다.

또한, MANILA BULLETIN(마닐라 블루틴), Tempo(템포) 등 현지 유력 언론사들의 열띤 취재와 보도도 새마을운

동 분위기 조성과 한국에 대한 현지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큰 몫을 했다.

더불어 경북도는 최근 신흥시장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경제통상 정보수집과 투자유치, 해외 관광객 유치, 잠발레스주 교류협력을 위한 연락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경북도 동남아통상문화교류센터'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설치, 이번이 김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는 일정의 마지막 날 '제조마 비나이' 필리핀 부통령을 방문, 새마을운동을 통한 대한민국의 근대화 경험을 필리핀과 공유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고, 이에 대해 부통령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이번 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리핀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다짐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개발국 개발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이 세계 속에 널리 전파되어 지구촌 가족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북이 가진 소중한 경험이 필리핀 잠발레스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다른 지역을 비롯한 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아시아 속에서 아시아와 함께하는 경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제조마 비나이 필리핀 부통령 면담



경상북도, '제4기 대학생 해외인턴사업' 신청자모집

해외자문위원기업, 세계한인무역협회 연계 최대 12개월 해외인턴 근무

경상북도는 오는 4월 말까지 '제4기 대학생 해외인턴사업' 참가자를 도내 각 대학을 통해서 모집한다.

'제4기 해외인턴사업'은 미국의 해외자문위원기업체에 12개월간 근무하는 유급인턴과 도내 2~3개 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회원인 동남아지역 기업체에서 3개월간 근무하는 무급인턴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참가자 모집은 총 70명 내외로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의 경우 4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휴학생 또는 최근 1년 이내 졸업자로서 인턴선발은 대학별 신청자 또는 추천자를 대상으로 기업체의 면접을 거쳐 선발하게 된다.

지역의 도내 소재 대학교를 통해 추천(선발)되는 만큼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도내 주소지를 둔 학생 등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인턴참가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는 공통적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왕복항공료를 지원하며, OKTA와 연계한 기업(기관)에서 무급인턴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무급인턴 기간 중 생활비 일부를 3개월간 지급한다.

경북도에서는 지난 3월 8일 도내 대학관계자 회의를 열어 제4기 해외인턴사업 내용진달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 향후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일정은 대학을 통해 자세히 안내키로 했다.

김호섭 도 국제통상과장은 "우리 도는 3기까지 110여명을 인턴으로 파견한 가운데 해외자문기업과 연계해 타 차단체와는 차별된 사업추진으로 실질적인 해외취업까지 이루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올해는 지역대학 및 OKTA 기업과도 연계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기업체에서 해외취업과 생생한 체험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문의 : 국제통상과 053-950-2968



최고의 음악으로 감동과 즐거움을...

기업체와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는 연주회 신청 받아

경상북도 도립예술단의 2012년도 공연일정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평소 공연장을 찾기 힘든 도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예술단 운영에 중점을 두고 기획공연과 찾아가는 연주회를 적극 확대한다.

올해 첫 공연은 지난 2월 3일 구미 소재 (주)이코니 임직원들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로 열렸다. 도립교향악단은 클래식과 영화음악, 추억의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여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밖에도 올해에는 기업체와 전통시장을 직접 돌며 보다 친숙한 공연을 펼칠 계획으로 현재 공연신청을 받고 있다.

▶ 신청 : 문화예술과 053-950-3567



■ 도립국악단 공연일정

일정	장소
3.29(목)	안동 예술의 전당
4.12(목)	군위삼국유사문화회관
5.10(목)	영주 아트파크
9. 6(목)	울진문화예술회관
10.19(금)	성주문화예술회관



■ 도립교향악단 공연일정

일정	장소
2.16(목)	칠곡교육문화복지회관
3. 8(목)	영천시민회관
3.22(목)	구미문화예술회관
4.26(목)	포항경북학생문화센터
5.17(목)	영덕예주문화예술회관
9.13(목)	청송진보문화센터
10.11(목)	울진문화예술회관
11.22(목)	군위삼국유사문화회관



꽃향기 실고 낙동강을 걸으며 달리는 자연길

봄의 계절이 되면 낙동강을 따라 걷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봄의 향기를 느끼고, 강을 따라 걷는 것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이번에는 낙동강을 걸으며 달리는 자연길을 소개한다.

회룡포 **삼강주막** **경천대** **인간마을** **하회마을** **무성마을** **달서**

낙동강을 걸으며 달리는 자연길은 봄의 향기를 느끼고, 강을 따라 걷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에는 낙동강을 걸으며 달리는 자연길을 소개한다.

자연길 **자연길** **자연길** **자연길** **자연길** **자연길** **자연길**

자연길은 봄의 향기를 느끼고, 강을 따라 걷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에는 낙동강을 걸으며 달리는 자연길을 소개한다.

봄으로 물든 자연과 벗어 걷기

봄이 되면 자연은 물들로 물들고, 사람들은 봄을 즐기러 산으로 오른다. 이번에는 봄으로 물든 자연과 벗어 걷기 여행을 소개한다.

독방길 **벚꽃길** **퇴계오솔길(백암길)** **오타길** **외사비산길**

봄이 되면 자연은 물들로 물들고, 사람들은 봄을 즐기러 산으로 오른다. 이번에는 봄으로 물든 자연과 벗어 걷기 여행을 소개한다.

봄이 선사하는 특별한 맛

봄이 되면 자연은 물들로 물들고, 사람들은 봄을 즐기러 산으로 오른다. 이번에는 봄이 선사하는 특별한 맛을 소개한다.

초량학습 **먹거리** **초량학습** **먹거리**

봄이 되면 자연은 물들로 물들고, 사람들은 봄을 즐기러 산으로 오른다. 이번에는 봄이 선사하는 특별한 맛을 소개한다.

경북 봄나들이

2017 경북 봄나들이

경북의 아름다운 봄을 즐기러 산으로 오세요.

경북관광진흥원

경북 봄여행 지도

경북의 아름다운 봄을 즐기러 산으로 오세요.

경북관광진흥원

봄의 향기를 두 어깨에 들쳐안

봄이 되면 자연은 물들로 물들고, 사람들은 봄을 즐기러 산으로 오른다. 이번에는 봄의 향기를 두 어깨에 들쳐안 여행을 소개한다.

보현산 별빛축제 **전통차시음축제** **신라시대마을축제** **신수동꽃축제** **대가야체험축제** **상왕문지축제**

봄이 되면 자연은 물들로 물들고, 사람들은 봄을 즐기러 산으로 오른다. 이번에는 봄의 향기를 두 어깨에 들쳐안 여행을 소개한다.

봄나들이의 정취가 추억이 되는 명품 촬영지

봄이 되면 자연은 물들로 물들고, 사람들은 봄을 즐기러 산으로 오른다. 이번에는 봄나들이의 정취가 추억이 되는 명품 촬영지를 소개한다.

경천대 **운문포** **주산지** **주상절리** **안산지** **할미교**

봄이 되면 자연은 물들로 물들고, 사람들은 봄을 즐기러 산으로 오른다. 이번에는 봄나들이의 정취가 추억이 되는 명품 촬영지를 소개한다.

경북관광 순환테마여행

경북의 아름다운 봄을 즐기러 산으로 오세요.

경북관광진흥원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웰빙 휴양지 '인기 대박 행진!'

올해부터 숲속의 집 4동, 산림휴양관 3동 확장 개장



산림휴양관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대한민국 대표축제 '탈춤축제'로 유명한 안동, 또 하나 이름난 곳이 '안동호반'의 멋진 경치이다. 주위 산들과 어우러진 호수풍경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다.

이 안동호반을 앞마당으로 삼아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84-1번지 일원 숲 속에 '자연휴양림'이 들어앉았다. '안동호반 자연휴양림'이 그 곳이다.

경상북도 산림자원개발원에서 2010년 1월 개장한 이 곳은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 생태숲, 야생동물생태공원 등과 함께 조성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휴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가족나들이가 많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대학생 MT, 각종 수련대회 등으로 예약이 가득 찰 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다.

개장 첫 해에 5천7백여 명, 2011년 구제역으로 인해 9개월(4월~12월)만 운영했음에도 5천6백여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다. 이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난 해 총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숲속의 집 4동과 산림휴양관 3동, 산림문화교육관 등을 확장, 올해 2월부터 개방하고 있다.

안동시내에서 35면 국도를 따라 도산서원 이정표를 보고 20여km 가다보면 한국국학진흥원을 지나 경상북도산림과학 박물관에 못 미처 안동호반 자연휴양림 입구를 만난다.(찾아가는 길 참조)



생태숲 산책로



야생동물생태공원



조류관람장

휴양림 입구에는 야생동물생태공원이 있어 사슴과 산양, 염소 등이 유유자적 거닐고, 공작새와 북한산 토종닭, 금계 등 희귀종을 볼 수 있는 조류관람장도 갖추고 있어 색다른 볼거리이다.

휴양림으로 들어서면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안동호반의 멋진 경치가 한 눈에 들어온다. 봄을 맞는 호수와 숲의 풍경이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저절로 펴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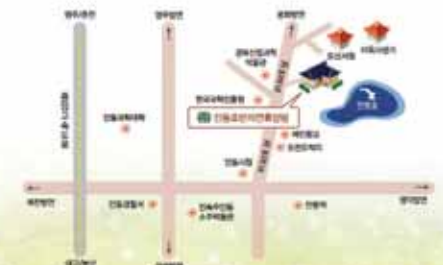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기와의집' 한 채와 초가집 세 채가 자리한 전통가옥지구, 이 곳은 대단위 가족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집 한 채마다 여러 개의 방을 갖추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캠핑장과 '숲속의 집' 4동이 나타나는데 개별 가족단위로 이용하기 좋고, 그 곳에서 조금 떨어진 산림휴양관 3동에는 다락을 갖춘 원룸형태로 11개의 방으로 되어있다. 특히 새로 건립한 산림문화교육관은 교육, 세미나, 단체연수 등에 유용한 대규모 강당 등을 갖추었다.

울창한 생태 숲을 돌아볼 수 있도록 잘 정비된 '등산로'는 가족, 친구들이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기에도 좋다. 각종 나무와 숲을 형형색색 물들이는 꽃을 구경하며 새들과 풀벌레, 개구리 등 자연생태를 직접 체험하는 경험은 '멋진 추억 만들기'에 그만이다. 또 휴양림 인근에는 도산서원,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육사박물관, 청량산 도립공원 등이 있어 안동 문화체험 여행코스도 적극 추천하는 곳이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숲속유치원, 숲 해설, 산림문화체험 등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산림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나물·산약초 체험장 등을 추가 시설하여 웰빙 휴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휴양림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http://huyang.gb.go.kr/>)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매월 1일 그 다음달 예약을 할 수 있다.

유의할 점으로는 5월 중순 산불조심 기간까지는 야외에서 불을 피워 요리를 할 수 없고, 캠핑장은 7월, 8월 하계에만 운영한다는 것, 또 가까운 곳에 가게가 없으므로 먹거리는 미리 준비해야 편리하다. '안동호반 자연휴양림'에서 멋진 자연과의 만남을 경험해 보시길...



**+추모·교육·체험이 어우러진 경북 안보관광상품 개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호국안보관광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는 3월 12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호국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상북도와 재향군인회는 안보교육에 관광콘텐츠가 가미된 호국안보 관광상품을 개발, 추모·교육·체험이 어우러진 경북 안보관광상품의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경북의 호국현장을 관광명소로 육성하는데 상호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선 정무부지사, 일본투자기업 적극 공략
도레이 BSF사 4천만불 조기 투자,
O사 1천만불 신규투자 이끌어내**

이인선 정무부지사가 지난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일본의 도쿄, 나고야 지역을 방문, 투자유망기업을 상대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교토부 야마다 케이지 교토지사(일본국지사사회회장)를 만나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 부지사는 일본 도레이 BSF사의 토가노 타케오 회장을 직접 만나 이차전지 분리막 제조라인 추가 건립 관련 투자를 촉구, 올해 안에 이차전지 분리막 제조라인 3호기를 완공하고 4호기 건립을 추진한다는 응답을 이끌어냈으며, 이어 신규 투자유치를 위해 나고야의 O사를 방문, 경북지역 투자에 대한 전향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김관용 도지사, 월성원자력본부 및 방폐장 현장 안전점검
‘원전 운영의 최우선순위는 안전성 확보’**

김관용 도지사는 3월 7일 이상호 도의회 의장, 전병훈 해병대 1사단장, 최중현 경북지방경찰청장, 최양식 경주시장, 울진부군수 및 지역 원자력대학 교수 등과 함께 경북지역 원전안전과 방폐장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월성원자력본부와 방폐장 현장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과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원자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국내 총 21기 원전 중 10기와 방폐장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했다.

GYEONGSANGBUK-DO

News Plus+



**+경상북도, 태양광 분야의 세계적 인증기관 유치
TÜV Rheinland 영남대학교 태양광 시험센터 개소**

경상북도는 태양광 분야의 세계적 인증기관인 독일 티유브이 라인란드(TÜV Rheinland) 태양광 시험센터를 유치, 3월 8일 경산시 삼풍동 소재 한국섬유기계연구소에서 이인선 정무부지사, 이효수 영남대학교 총장, 한스 올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 슈테판 슈미트 TÜV 해외총괄본부장 및 태양광 기업체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ÜV 라인란드 영남대학교 태양광 시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지금까지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수출에 필요한 국제인증 받기 위해 일본, 중국 등 인근 국가의 실증기관을 이용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있었으나, 이번 시험센터 개소로 국내에서 실증이 가능해져 제품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제품의 규격화 및 표준화를 통한 신뢰성 확보로 해외시장 개척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찰칫!
경북의 오늘

**+제93주년 3·1절 맞아 도내 곳곳에서
기념행사 개최
기념행사 마치고 낙동강 칠곡보
공사현장 점검**

경상북도는 아흔 세 번째 3·1절을 맞아 3월 1일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김관용 도지사, 생존애국지사, 도내 기관단체장, 보존단체장, 독립유공자 유족, 다문화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의 위업과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영원히 기리는 도 단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도내 곳곳에서 독립만세운동 재현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쳤다.
이날 김관용 도지사는 3·1절 기념행사를 마치고 낙동강 칠곡보를 방문하여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인 낙동강이 생명의 원천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성김 주한미국대사, 김관용 도지사 예방
해외 새마을운동 보급·독도와 동해문제 등
미국정부 협조 요청**



김관용 도지사는 2월 27일 한미 수교 129년 만에 첫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한 성김 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미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간 교류협력방안 등에 대해 환담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저개발국 빈곤퇴치를 위한 ‘해외 새마을운동 보급’과 ‘독도와 동해문제’, 문화주권 차원의 ‘해외민중 문화재 환수운동’ 등 국제사회에서 경북의 지방 외교활약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성김 대사는 경상북도의 현안사항과 지방외교 활동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 낙동강연안 4개 광역자치단체장 정책협의회 개최
5월 10일 '낙동강의 날' 제정,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김관용 도지사는 2월 28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낙동강연안 4개 광역단체장과 27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낙동강 정책 협의회'에 참석, 새로운 낙동강시대 상생의 물꼬를 띄우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낙동강 연안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낙동강지류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국가하천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5월 10일 '낙동강의 날' 제정, 낙동강 연안권의 균형적인 발전과 물 관리 시스템, 홍수 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을 합의했다.

+ 김관용 도지사, 대학생과 '독도와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
대구대에서 반크(VANK), 지역대학생과 함께 머리 맞대

김관용 도지사는 2월 21일 대구대학교 종합복지관 소극장에서 일련의 다케시마의 날 기념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 대학생 100여명과 함께 '독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의 박기태 단장, 경북대·경일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영남대 등 100여명의 지역 대학생들이 참여, 김 지사는 '경상북도의 독도영유권 공고화 정책', 박 단장은 '독도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독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청년의 역할과 현실참여 방법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였다.



+ 농어촌 의료인력 양성 위해 전국 최초 도입한 제도
도지사 추천 특별전형입학생 선발증서 및 장학증서 수여

경상북도는 2월 22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 소병욱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학생 및 학부모,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의료 인력양성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지사 추천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입학생 9명에게 선발증서 및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의예과 1명, 간호학과 3명, 물리치료학과 2명, 방사선학과 2명, 언어청각치료학과 1명 등 5개학과 9명이며, 도지사 추천 특별전형제도는 '99년 6월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입학제도로서 2000년부터 올해까지 141명을 선발했다.

+ 제15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수상자 선정
대상에 아진산업(주) 손영호, 도레이첨단소재(주) 이승훈 영예

경상북도는 2월 20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제15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심사위원회를 갖고 노사화합을 통해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근로자 부문과 사용자 부문에 총 10명을 선정했다.

영예의 대상에는 근로자 부문에 아진산업(주) 노조위원장 손영호씨, 사용자부문에 도레이첨단소재(주) 지원담당상무 이승훈씨가 각각 선정되었으며,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근로자 부문 - 금상 포항시청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김삼성
은상 문경여객자동차(주) 노조위원장 황경섭
동상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 노사지원팀장 한병익
환약택시(주) 노조분회위원장 이광동
- ▶사용자 부문 - 금상 (주)농심구미공장 공장장 이병학
은상 신성택시(주) 대표이사 김성부
동상 (주)피에스씨 대표이사 송동영
지멘스(주)초음파사업부 부사장 박수만

+ 경북도,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찾기 위해 총력
경북도 ↔ 농협(사)우리문화재찾기
운동본부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는 2월 15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김관용 도지사, 김유태 경북농협본부장, 박영석 (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찾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3개 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북농협은 문화주권 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경상북도와 (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부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찾기 운동에 필요한 자금 조성을 위해 5천만원의 기금과 함께 올해 3월 출시한 '문화재사랑통장' 판매로 공익기금을 조성해 2016년까지 매년 1억원씩 후원하는 등 총 5억 5천만원을 사단법인의 기금으로 후원한다.

+ 경북도, 교과부와 손잡고 고졸자 채용한다
경북도·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30% 고졸 채용



경상북도는 2월 17일 도청강당에서 김관용 도지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영우 도교육감, 최영우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과 마이스티고·특성화고 교장단, 지역기업대표, 시군·공기업 인사담당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직공무원 고졸자 채용과, 교육기부 확산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경북도교육청, 경북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참석한 기관·단체 대표들은 우리 사회의 지나친 학력 지상주의가 청년실업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능력에 따라 채용되고 대우를 받는 공정사회 구현과 창의적 인재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북도, 올해 산림분야 상시일자리 8천여 개 창출
희망 2012 숲 가꾸기 일자리창출 발대식 개최**



GYEONGBUK-DO

**+경상북도 ↔ 한국남동발전 ↔ STX솔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는 2월 2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장도수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 최진석 STX솔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정보 및 기술교류, 에너지기업 유치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경상북도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경북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에 한국남동발전 및 STX솔라가 공동 협력함으로써 현재 경상북도가 최대 역점으로 추진하는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올해 개최 예정인 '월드그린에너지포럼' 등 에너지관련 정책들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월 14일 영천체육관에서 김관용 도지사, 김남균 산림청차장, 김영석 영천시장, 숲 가꾸기 근로자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12, 숲 가꾸기 일자리창출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 한해 경상북도는 총사업비 2,617억원으로 산불방지, 사방·임도, 조림사업, 산림병해충방제,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테라피단지 등 숲 가꾸기 시행으로 1일 3만4백여명, 연인원 100만명의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농·산촌 소득향상과 서민생활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 전국 시·도지사회의에서 지역안전사업 건의
3년 6개월 만에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 도...**

김관용 도지사는 2월 1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 참석,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 이후 POST-낙동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천수구역 개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행사에 정부차원의 공동개최 참여와 국제행사 승인 및 국비 200억원 지원 등 지역 주요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 및 현안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한편, 김관용 도지사의 노력으로 영·호남 8개 시·도 상생발전을 위한 '제11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를 2008년 6월 이후 중단된 지 3년 6개월 만인 1월 31일 경남 사천시청 회의실에서 개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 방문의 날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창출 실적이 뛰어난 포항의 (주)포스위드와 영천의 (주)세원물산을 2012년도 1/4분기 행복나눔기업으로 선정, 3월 12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방문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인선 정무부지사는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패를 전달하고 생산 현장을 돌아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경북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본격 추진

경상북도는 3월 7일 구미 (주)금오공대 부지 내 모바일융합 기술센터에서 (사)경북산학융합본부 설립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 (주)삼성전자, (주)LGPD, (주)이주, (주)삼성금속 4개 기업과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대, 영진전문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산학연관 주요인사 15명을 (사)경북산학융합본부 이사로 선임하고, 우형식 금오공대총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정책토론회 개최

경상북도는 3월 7일 안동시 대회의실에서 안동시 발전협의회가 주관한 '도청이전 신도시 전문문화 도시 만들기' 정책 토론회를 개최, 이주석 행정부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신도시 사업시행사,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상북도, '물산업 분야 정책보좌관' 위촉

경상북도는 3월 7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이순탁 영남대 건설환경공학부 석좌교수를 물산업분야 정책보좌관으로 위촉했다. 이순탁 정책보좌관은 앞으로 경상북도의 물 산업 육성정책, 국내·외 물 산업 관련 정보제공, 지역 물 기업 육성과제 발굴지원, 해외진출지원, 특히, 2015년 3월 대구·경북에서 개최하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



포항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준공식 가저

경상북도는 2월 23일 포항시 북구 기계면 소재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피깅장에서 포항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준공된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1년 경상북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지원사업'에 서포함농협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13억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부지 7,254㎡, 건축면적 964.6㎡ 규모로 HACCP 설계기준에 맞는 최신식 건물이다.

국토해양부 2011년도 사업지원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경상북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2011년도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사업지원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전국 10개 지자체, 63개 산업단지공업용수에 지원된 약 1,560억원(경북 189억원)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자체평가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2013년도 국비 확보에 10%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경북도, 2011년도 농촌개발사업평가 전국 으뜸!

경상북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10일간 2011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전국 120개 시·군, 3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평가에서 도내 9개 시·군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전국에서 최다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선정된 우수지역에는 2013년 신규사업신청 가점부여, 예산증액 10% 반영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협의회 회장단회의 개최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협의회는 황재길 회장과 대륙별 지역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회의를 개최, 해외 투자유치, 시장개척, 해외일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3월 5일 김관용 도지사를 예방하여 앞으로 우리 도의 해외투자 및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일자리 창출 지원 등 경북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어린 연어 80만 마리 도내 4개 하천에 방류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는 3월 7일 울진군 왕피천을 시작으로 울진 남대천, 영덕 송천, 포항 형산강 등 도내 4개 하천에 총 80만 마리의 어린 연어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연어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울진 왕피천에서 포획한 730마리의 어미 연어에서 총 95만개의 알을 부화시켜 4개월간 사육한 치어들로 북태평양으로 이동해 성장하고, 2~4년 후 어미가 되어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와 산란하는 모천회귀성 어종이다.

행정부지사, 물가잡기 및 전통시장 살리기 솔선



경상북도 이주식 행정부지사는 3월 3일 상주 중앙시장에서 상주시장, 도청직원, 특별히 고향을 찾은 경북출신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등 50여명과 함께 '물가잡기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펼치고, 농수산물 및 생필품 가격을 점검했으며,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방문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경상북도 우수기업 공동브랜드인 (청도감외인), 타올(주성산업), 비누 '실라리안'이 3월 5일 서울 목동 소 (솔나라), 홍삼(천제명), 매실가공(송재 '행복한 세상' 광매원), 장갑(목화 백화점에 매장을 오픈, '실라리안' 브 표장갑), 유기(경주 폰, '실라리안' 브 유기공방), 양말(경일 랜드명으로 대형백화점에 최초로 입 컬렉션) 등 8개 제품이며, 올 8월까지 접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참여하는 시범점에 성과에 따라 제품을 다양화 하고 매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북 농·식품 해외마케팅 본격화

경상북도는 3월 6일부터 9일까지 일정으로 일본 지바현 일본컨벤션센터(Nippon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한 '2012 동경식품박람회(FOODEX JAPAN)'에 지역의 김치수출 전문업체인 (주)모아, 의성흑마늘, 정화식품, 영양고추유통공사, 구암농산, 웰유얼, 울진로하스 등 7개 업체와 함께 참가해 경북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판촉활동을 펼쳤다.

경북도 개발 장미, 국화 16품종 통상실시권 계약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구미화훼시험장은 자체 개발한 장미와 국화 신품종의 통상실시권 이전을 위해 경북도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신청을 받은 16품종에 대해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16품종은 장미 '리빙하트', '리버사이' 등 10품종과 국화 '오렌지엔디', '피치업' 등 6품종이다. (※ 통상실시권 : 품종보호권자로부터 품종의 권리를 양도받는 것으로 육묘업체가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으면 실시품종의 종묘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

경북도립대학, 2년 연속 정원 내 등록률 100% 달성

경북도립대학은 2012학년도 입학식을 3월 5일 대학 문화체육관에서 신입생과 학부모, 이현준 예천군수, 정상진 도의원 등 도내 기관단체장과 각계 인사 등 7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도립대학은 2011학년도에 이어 2012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정원 내 등록률 100%를 달성하여 2년 연속 정원 내 등록률 100%라는 성과를 올렸으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하의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전문대학 직업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처음 실시한 기관평가인증에서 전 평가요소 충족으로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경북 생태산업단지 관리, 전국 최우수 사업단 선정

경상북도가 지원하고 있는 경북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국 8개 지역 생태산업단지사업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실적 평가'에서 최고 점수인 S등급을 받아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됐다. 생태산업단지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부산물물을 재처리하는 등으로 오염물 무(無)배출을 지향하는 산업단지이다.

프랑스 알자스주 대표단 12명, 경북도 방문

경상북도와 자매결연 맺고 있는 프랑스 알자스주의 앙드레 라이샤트 제1부지사와 마리 렌 피쉐 부지사 겸 지역관광위원장 등 프랑스 알자스주 대표단 12명이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경제, 관광, 의료바이오, 교육분야 상호 교류방안 협의를 위해 경북도를 방문, 도내 기업과 대학 등을 찾아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포항지능로봇연구소 국가연구기관으로 승격

경상북도는 2월 9일 포항지능로봇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이인선 정무부지사, (주)동부로봇, (주)ED, (주)오토, (주)아진산업 등 4개 기업과,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학회, 포항공대, 지식경제부 등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지능로봇연구소의 국가연구기관으로 전환을 위한 한국실용로봇연구원 설립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 한국실용로봇연구원 이사 16명을 선임하고, 김관용 도지사를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울릉도 '섬백리향 향수', 중앙평가 우수사업 선정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섬백리향 향수' 제품화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10개 시·도, 85개 사업 중 우수사업으로 선정, 상사업비로 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시상식은 오는 9월 예정인 제4회 농어촌산업박람회에서 개최한다.



글로벌 천연물신약시장 이끌 날개 달았다

경상북도는 2월 20일 인터블고 호텔에서 이인선 정부부지사, 이준구 대구한의대총장, 이형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장래웅 경북테크노파크원장, Dirk Heinz 독일 헬름홀츠 감염연구센터장, 대구한의대교수, 천연물 신약관련 기업인, 연구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대구한의대-헬름홀츠간 천연물신약개발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1년 통합방위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경상북도는 2월 15일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2012년 제45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2011년 통합방위업무유공 최우수상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개최한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제19차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개최한 유공을 인정 받은 바 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개원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은 경상북도공립나무병원을 1월 12일에 개원, 도내 아파트와 학교, 주택 등에 심겨진 정원수와 도시녹지공간 등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병해충 진단과 방제방법 컨설팅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수목 진단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나무병원 이용방법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환경과 (054-778-3851)나 인터넷 (<http://www.kbfoa.go.kr>)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우리 마을 녹색길' 사업에 경북도 전국 최다 선정



경상북도는 2012년 행정안전부 '우리 마을 녹색길 공모사업' 심사에서 청도 물레길, 영천 보현산 하늘길, 청송 신성계곡 녹색길, 문경 양상천애 자연그네로, 상주 다락는 녹색길 등 전국 최다인 5개 사업 75.4km가 선정되어 21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다.

문경소방서 예천119안전센터 신청사 준공식

경상북도는 1월 19일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 소재 문경소방서 예천119안전센터에서 이환성 국회의원, 이현준 예천군수, 고우현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과 지역 기관·단체 관련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연면적 997㎡ 부지에 2층 규모로 예천119안전센터를 신축, 늘어나는 예천지역의 소방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 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 수출확대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업무협력

경상북도는 2월 16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지역 농산물의 수출확대 등 글로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경북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유통개선, 식품산업육성에 협력하고, 경북도의 해외통상 주재관과 aT 해외지사간 상호협력 강화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한다.

백두대간 그린마인 비즈니스 구축사업 MOU 체결

경상북도는 2월 8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 이준구 대구한의대총장, 백승호 대원제약(주)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백두대간 그린마인(Green Mine) 비즈니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유지한 '백두대간 그린마인 비즈니스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경북드림파크 조성한다!

경상북도와 대구대학교가 공동 발족한 '몽골 신도시 개발 기술협력 프로젝트 T/F팀'이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간 몽골 현지를 방문, 도시개발분야 인적 교류, 우수기술 및 장비수출, 경북업체의 몽골 진출 협력방안 등에 대해 울란바타르시와 경상북도가 상호교류협정을 체결, 울란바타르 시내에 '경북 드림파크' 조성부지 20ha를 확보했다.

'호랑나비 사육키트' 실용신안등록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은 자체개발한 어린이 학습에완용 곤충 인공사육키트를 2011년 9월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 출원하여 올해 1월 '에벌레용 조합사육키트'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을 완료, 산업재산권을 획득했다. 호랑나비·누에 사육키트는 '알→에벌레→번데기→성충'으로 자라나고 커가는 전 과정을 직접 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자체개발·제작한 사육키트이다.

경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공모 3년 연속 선정

경상북도는 경주관광특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2010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16억원을 확보, 보문단지 이노베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경관교량 설치, 호수순환탐방길 조성 등을 추진,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문화 테마관광특구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경북도,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선정

경상북도 대표 홈페이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정부, 업계, 학계 및 장애인 관련 단체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웹 사이트 100여개를 대상으로 인증하는 '제15회 웹 접근성 품질마크' 수준 점검 심사에서 우수사이트로 선정되어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받아 앞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전국 최다선정 쾌거

경상북도는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2년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대상지로 전국 8개소 중 영주, 안동, 봉화 등 3개소가 최종 선정, 개소당 10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최소 면적 600ha이상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 기준(국비30, 지방비50, 기타20)으로 3년간 추진하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분야 단 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국비사업이다.

■ 동남권 신국제공항 재추진 간담회 가져

- 총선 및 대선 공약사업으로 반드시 재추진해야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박기진)는 1월 6일 특위 위원장실에서 '동남권 신국제 공항 재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총선 및 대선 공약사업으로 반드시 재추진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신공항 명칭은 동남권으로는 맞지 않으며 향후 영남권 또는 남부권으로 명칭을 확대·변경하여 호남과 충청권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추진하고, 현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 지이므로 활동기간을 더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문화적 독도 홍보방법 모색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찬길)는 도청 독도업무 관계자와 함께 1월 12일 서울 강동아트센터에서 공연한 독도 '바다사자'를 소재로 한 뮤지컬 '강지대왕의 쿠키 상자'를 관람, 그동안 행사성에 치우쳐진 독도 홍보를 반성하고, 뮤지컬, 연극 등의 제작·공연을 통해 문화적인 방법으로 독도를 홍보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했다.

■ 경북도의회 - 대구시의회 상생협력 본격화

- 동남권신국제공항, 지방분권, 서민경제, 독도 등 공동 대처



경상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상생협력을 위한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상호 경상북도의회의장은 1월 17일 의장 접견실에서 김화자 대구시의회 의장의 방문을 받고,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위한 MOU 추진 등 앞으로 다양한 지역현안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재추진 문제와 지방분권 관련 사안, 서민경제, 독도문제 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간에 공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을 점검하고 풀어 나가기로 했다.

■ 한창화 의원,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농수산위원회 한창화 의원은 1월 18일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개최된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우수사례를 발굴, 격려하는 것으로 대구·경북 광역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 이상호 의장, 해군 제1함대 방문



이상호 의장과 전찬길 독도수호 특별위원장은 1월 19일 경상북도의회와 자매결연한 강원도 동해시 해군 제1함대 사령부를 방문, 새로 취임한 김진형 해군 제1함대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상호 우호증진과 교류협력을 통해 독도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해 10월 28일 해군 제1함대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제252회 임시회 결산>



■ 2012년 첫 임시회, 도청 및 도교육청 업무보고 청취 ■
민생 관련 안건 처리, 도정현장 현지확인 실시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2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52회 임시회를 개최, 2월 8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도교육감으로부터 2012년도 경북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종 민생 관련 안건 처리와 도정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으며, 2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처리하고 폐회했다.

■ 정책연구위원회, '도의회 입법정책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구를 위한 의원연구단체도 지원하고 있다.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2월 8일 도의회 제2별관 회의실에서 이상효 의장 등 60여 명의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입법정책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정책 워크숍을 열고 지방자치시대 도민에게 필요한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정책대안 개발 등 입법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 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별 2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심도 깊은 연

■ 기획경제위원회, 여성정책관 신설 등 열린 토론회 끝에 원안 가결



에 맞게 업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의 새로운 변화 및 발전을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2월 9일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날 원안 가결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정 역점시책인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여성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여성정책관 신설',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 등 행정환경 변화

■ 기획경제위원회, 성주 전통시장 등 현지확인



현황 청취 및 성공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현지확인 활동으로 2월 15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주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2월 16일에는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안정된 세수확보를 위해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성주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추진

■ 문화환경위원회,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현장 점검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2월 16일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월정교 복원공사 현장과 교촌한옥마을 조성현장을 방문, 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보존관리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포항 구룡포근대문화역사거리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과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지를 확인했다.

■ 이상호 의장, 대구대에서 명예행정학 박사 수여

- 지역대학 R&D 육성사업 등 지역발전 도민복지증진 기여



이상호 의장은 2월 17일 대구대학교 성산홀 강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명예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아 경상북도의회 개원(1952년) 이후 최초 명예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기록을 남겼다.

이상호 의장은 4선 도의원을 연임하면서 통상문화위원장, 부의장, 의장 등을 두루 거치고, SOC 국책사업 지원을 비롯한 WTO와 FTA에 대응한 강소 농업육성과 문화산업, 지역대학 R&D 육성사업 등 지역발전과 도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스키 세이지 일본 사이타마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 방문



이상호 의장은 2월 9일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한 일본 사이타마현의회 스키 세이지 의장 등 일본방문단 일행을 접견하고, 양 지방의회의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 모색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스키 세이지 의장 등 13명의 사이타마현의회 방문단 일행은 경상북도 세계문화유산 우수사례 시찰, 경북도의 관광객 유치 정책, 경제교류방안 모색 등을 위해 경주와 안동 등 경상북도 곳곳을 돌아보았다.

〈제253회 임시회 결산〉



■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도정질문** ■

각종 민생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안건 심사·처리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호는 3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개최, 3월 1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김관용 도지사과 이영우 도교육감이 출석한 가운데 경북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홍광중, 도기욱 의원이 도정질문을 실시했으며, 3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채옥주, 박병훈, 박권현, 윤성규 의원이 각각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어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서민 민생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으며, 3월 2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민생 관련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폐회했다.

■ 도정질문 요지



■ 홍광중 의원(교육위원회)

낙동강 유역 친수공간 개발 관련 기초단체들이 추진하려는 4대강 수변구역 골프장 건설 등 난개발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제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낙동강 유역별 어족 자원 복원 대책, 낙동강 토속 어류 등이 복원될 즈음 '낙동강 민물고기 축제' 행사를 도에서 개최할 의향, 낙동강 어족자원 복원과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방안, 낙동강 유역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종합서비스센터·휴식공간 마련 등 시설정비에 대한 견해, 낙동강 친수공간 유지·관리에 따른 국비 예산 확보 방안, 산림자원 입지에 따른 특성화된 산림을 개발하는 데 대한 도지사의 견해 등에 대해 질문했다.



■ 도기욱 의원(기획경제위원회)

3대 문화권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도차원의 대책, 유교문화 및 유교정신 계승과 관련 정신문화와 도덕적 가치를 우리 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 경북도 의회사무처 인력을 현실에 맞게 증원하고 경북도회의의 독자적인 입법정책연구와 보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회의 위상강화안에 대한 견해,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높이고 단위학교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용의 확대에 대한 대책, 학교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표준교육비 기준 마련 방안 등을 질문했다.



■ 채옥주 의원(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경북의 농어촌 공공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와 시·군 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 및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나 대책,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이 미진한 이유 및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 영일만항 건설사업이 보다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영일만항 조기 건설사업을 총선 및 대선 공약 포함 추진에 대한 입장과 추진의지,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의 바닷물 역류 문제의 원인 규명과 근원적으로 바닷물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도청 신도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을 하는 데 대한 견해 등에 관해 질문했다.



■ 박병훈 의원(문화환경위원회)

FTA 발효 이후 피해농가의 자생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임시 도태 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 도차원의 대책, 축산농가의 원료사료 구매 시 지원대책 마련에 대한 견해,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도내 축산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북만의 대책, 농가소득 증대방안 및 농가부채문제 해결 대책, 향후 도차원의 농업예산 확보방안 및 대책, 도차원의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방안, 공유재산관리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견해,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도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방안, MICE 산업 활성화 방안, 방재장 유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견해, 한수원 본사의 경주이전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대응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 박권현 의원(농수산위원회)

도내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방안, 향후 버스 재정 보조금지원 내역 공개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경북도립대학의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학교운영경비 충당 방안, 경북도립대학에 신설된 축산과와 응급구조과가 지나치게 외래교수에 의존해서 운영하는 현행 학사시스템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신종종 종자 확대·보급으로 외국 로열티 지급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 야생동물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농작물 피해대책, 농작물 피해보상에 따른 농업인 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 등 관리방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청도 소싸움경기장의 레저세 감면할 의향 등을 질문했다.



■ 윤성규 의원(건설소방위원회)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 추진을 촉구, 한·중 FTA 체결 추진상황 및 향후 예상되는 농가소득과 영농규모 양극화에 대한 대책, 한·중 FTA 체결 이후 예상되는 농어업 부문 피해에 대해 농업소득보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대한 견해와 계획, 중국산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와 인력양성 및 규모화를 통한 생산기반 확충 등 계획, 관세항허 예외 규정을 적용할 농수 축산물을 선별하여 FTA 협상 시 협상품목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 미국·EU 등과의 FTA 체결에 따른 추진상황과 도의 대책 등에 관해 질문했다.

경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30억원 지원

식품진흥기금 연리 2% 장기저리 융자



경상북도는 올해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30억원을 연리 2%(화장실개선자금은 1%)의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HACCP 적용업소(적용희망업소 포함)의 경우 5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2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화장실개선사업 1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상환 조건은 융자금 1억원 이상의 경우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1억원 이하는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을 수리·개조 또는 보수를 위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는 시·군청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경북도는 담보부족으로 융자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를 위해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경북신용보증재단을 연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융자 규모도 지난해 52개 업소 17억8천100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30억원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후·폐업중인 업소와 영업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융자목적 외 사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받아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담당부서 : 식품의약과 053-950-2441

분할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도 분할이 가능해진다

올해 5월 23일부터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경상북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하여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도민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2월 22일 제정·공포되어 오는 5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시행되며,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2인 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 를 받아 토지소재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1986년도와 1995년도, 2004년도에 걸쳐 총 세 차례 시행한 결과 10,000여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 정리하여 단독 등기함으로써 도민의 원활한 소유권행사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053-950-3683

전국 최초 결혼이주여성 낙동강 보 주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5월부터 시·군 관광부서에서 지원 신청 접수

경상북도는 중국, 동남아 등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외국어 능통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경북도내 어디든 방문하더라도 외국어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출신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어 능통 문화관광해설사 40여명을 선발한다.

또 도내 낙동강 5대보(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와 주변 관광지를 전문적으로 소개할 낙동강변 문화관광해설사 10여명을 양성하여 보(狀) 개방 이후 늘어나고 있는 관광객들을 안내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시·군 관광부서에서 해설사 지원 신청 접수를 받고,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신청 요건은 주민등록주소 경북도내에 주소와 두고, 다문화가정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한국문화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말 구사가 자유로워야하며, 낙동강변 문화관광해설사는 보 인근에 거주하면서 지역 문화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교육대상자들은 해설사로서의 기본소양과 해설안내기법, 경북의 역사·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교육 및 낙동강 유역의 생태교육 등 100시간 이상의 양성교육과정과 시험을 거쳐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후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 담당부서 : 관광진흥과 053-950-2828

산불 최초신고자에 10만원 포상

경북도, 올해부터 산불신고자 포상금제 운영

경상북도는 2012년부터 '산불신고자 포상금제'를 운영, 산불발생 최초신고자에게 10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고, 산불 방화 또는 실화자의 신고 또는 검거공로자에 산 불피해액의 10%상당액(최저 10만원, 최고 3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포상금 지급은 시·군 산림부서장이 신고자에 대하여 지급대상여부 등을 검토, 경북도로 신청하면 도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우송한다.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등이 신고한 경우와 실화자 및 방화자 본인 또는 그 가족들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담당부서 : 산림복지과 053-950-2616



춘곤증 예방에는

썩, 달래, 냉이, 두릅 등

봄나물이 제격



춘곤증은 봄철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증상으로 졸음, 피로감,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을 느끼는 현상이다. 추운 겨울 날씨에 움츠러든 근육이나 피부 등 신체 부위가 따뜻한 봄날이 되어 이완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이는 봄이 되면 낮 시간이 길어지고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소비는 많아지는 반면, 추운 겨울 동안의 운동부족으로 인해 신체가 이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일종의 생리적 보상반응일 뿐 질환은 아니다.

춘곤증을 이기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C,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탄수화물의 연소를 돕는 비타민 B1 식품도 좋다. 현미, 울무, 돼지고기, 닭의 간, 호두나 잣, 콩에 많이 들어 있다.

봄철 산채류도 춘곤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썩, 달래, 냉이, 부추, 두릅 등의 봄나물은 입맛을 돋워주고 피로회복에도 그만이다. 다시마, 미역, 파래, 김 등의 해조류 역시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가 많아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춘곤증을 이기는데 도움을 준다.

아침밥은 필수,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을 하게

되고, 과식을 하면 소화기관에 혈액이 몰리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량과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식후에 잠이 쏟아진다. 소식(小食)으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녹차로 졸음을 물리쳐 머리를 맑게 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춘곤증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주고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격렬한 운동은 피로를 가중할 수 있으므로 피한다.

밤에 충분히 자는 것이 가장 좋으나,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면 10~2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단, 주중에 쌓인 피로를 풀겠다고 휴일에 잠만 자는 것은 금물. 오히려 다음 날 더 심한 피로를 느끼게 되므로 휴일 낮잠도 30분 정도로 제한한다.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보약이나 영양제 복용만으로 춘곤증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하지만 봄철에 찾아오는 피로감이 단순한 춘곤증인지 어떤 질환의 증세로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으므로 피로감이 심할 경우에는 일단 정밀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상주감시험장, '감 유전자원 도감' 발간

감 재배 농업인 · 연구자들의 지침서 및 교육용 길잡이 기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상주감시험장에서는 우리나라 감 분포, 재래감의 명칭분류, 유래를 비롯한 과실의 특성을 조사하여 감 재배의 지침서로서 활용하게 될 '감 유전자원 도감'을 발간했다.

'감 유전자원 도감'은 상주감시험장에서 16년 동안 우리나라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감나무와 외국의 도입 유전자원 180여종을 수집·보존하면서 그 특성을 조사·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한 것으로, 특히 2012년부터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UPOV)의 전면 실시로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록내용은 우리나라 감 재배의 분포, 한국 재래감의 명칭 분류와 유래를 비롯하여 유전자원 각각의 나무성질, 과실의 특성, 수집지역 등의 설명과 착과, 꽃, 잎, 종자, 과실 단면, 나무 전경 등의 사진이 함께 실려있어, 감 재배 농업인과 연구자들의 지침서로서 뿐만 아니라 감나무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인식 제고 및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용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상주감시험장은 전국 유일의 '뽕은 감' 연구기관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감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어 2008년도부터 '국가식물 유전자원보존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 문의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상주감시험장 054-531-0591

경북도, "일하기 좋은 지역 100대 기업" 발간

청년의 입장에서 본 우수기업 선정... 채용계획, 기업소개 등 정보 제공

경상북도는 기업의 채용정보를 담은 '일하기 좋은 지역 100대 기업'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청년과 기업을 이어주는 희망이음 프로젝트 참여기업, 연매출 1,000억 이상인 기업, 프라이드 지정업체, 첨단벤처기업 등 올해 채용계획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대학생이 직접 기업을 탐방하는 희망이음 프로젝트 참여기업의 정보를 반영하여 기업규모 위주로 이루어지던 종전의 채용정보 틀에서 벗어나 기업의 안정성, 발전가능성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하기 좋은 우수기업 위주로 100대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책자 발간에는 경북도일자리센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도내 대학과 특성화고등학교, 도·시군 일자리센터, 고용센터 등에 배부하여 청년들의 구인구직 알선과 상담용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역의 기업들이 인재를 구하지 못해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청년들은 오히려 취업난을 겪는 mismatch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채용정보 책자 발간이 지역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실업난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의 : 일자리창출단 053-950-3416

통일기원 제12회 포항해변마라톤대회

달려가 함께!

2012
일 6월 10일

포항시종합운동장

출발 09:00



종 목 개인전 5개 종목 (하프, 10km, 5km 일반 / 학생 / 장애인)
주 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포항시협의회
주 관 포항시체육회
진 행 하이기어
후 원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교육지원청, 포항시생활체육회,
포항시육상경기연맹, 포항시장애인체육회, 포항시마라톤연합
사무국 070-8688-4404



하프 / 10km 기념품

5km 기념품 (T-shirt)

포항해변마라톤 검색 하세요

www.pohangmarathon.com

제5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The 50th Gyeongbuk Sports Festival



2012
5.11 [금] ▶ 5.14 [월]

- 장소 _ 구미시민운동장과 종목별 경기장
- 주최 _ 경상북도, 경상북도체육회
- 주관 _ 구미시, 구미시체육회
- 후원 _ 경상북도교육청, 구미교육지원청